



## 잠재계층성장모형을 활용한 지적장애인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 분석\*

조영희\*\* · 박재국\*\*\*

### Trajectories of change in Life Satisfaction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ing\*

Cho, Younghee\*\* · Park, Jaekook\*\*\*

####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latent groups according to changes in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examined effects of cognitive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literacy skills on classification of latent groups. **[Method]** Data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N=363) from 2nd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re analyzed using latent growth class modeling.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find effect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Results]** Latent subgroups according to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4 groups : 'high life satisfaction', 'average life satisfaction', 'Decreased life satisfaction over time', and 'Increased life satisfaction over time'. As a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gnitive abil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literacy skills are effect factors on classification of latent subgroups. **[Conclusion]** Based on this results,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Latent Class Growth Modeling, Intellectual Disabilities, Life Satisfaction, Literacy skills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7S1A3A2067778)

\*\* 제 1저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Lecturer, Dep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jaekook@pusan.ac.kr)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小確幸)이란 단어는 현대사회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개인의 행복, 심리적 안정과 같은 주관적이고 질적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보람, 박혜준, 2011). 이처럼 한 개인이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애를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여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사는 것은 중요하다(이신숙, 2011). 삶의 만족도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만족한다고 평가하는 정도와 정서적인 행복감이 포함된 것으로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의미한다(황재원, 김계현, 2009). 삶의 만족도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또는 웰빙(Welling-being)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김동화, 김미옥, 2015),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는 주관적인 삶의 질의 한 영역이다(Windle & Woods, 2004).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개인의 가치관과 기대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자신의 일상적인 욕구를 충족하여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삶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본능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진다(유공순, 2010).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관심은 1980년 후반부터 장애인을 위한 교육, 전환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였다(박승희, 2000).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은 장애인의 심리적 안녕과 복지 및 지원 서비스의 성과(Kraemer, McIntyre, & Blacher, 2003)와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장애인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장애인의 삶의 질 또는 만족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낮다고 하였다(박재국, 손상희, 이미숙, 2002; 오세란, 2006).

장애인 삶의 만족도 및 주관적인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는 취업여부(전명숙, 2018; Beyer, et al., 2010; Flores, et al., 2011), 직무만족도(박광표, 김동철, 2015; 심미영, 안성아, 2012), 자기결정(김정권, 김혜경, 2000; Wehmeyer & Schalock, 2001), 거주형태(박성우, 신현기, 2003; Gerber, et al., 2008), 의사소통능력(한경임, 2001), 의료서비스(Petry, Maes, & Vlaskamp, 2009), 정서지능(김길태, 유애란, 2013; Rey, Extremera, & Trillo, 2013), 이동성(고관우, 황경수, 2014), 경제적 지위(김길태, 유애란, 2013; 김대규, 신동환, 2015; 김봉희, 서영희, 2015; 조용운, 조경훈, 2014) 여가활동

참여(김지태, 2011; 최수남, 이훈, 2014) 등이 장애인의 삶의 질 및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그 외 연령, 혼인상태, 장애정도,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여부, 주관적 계층의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신승배, 2017).

지적장애인은 선천적으로 지적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판단 및 통찰, 언어능력 등의 결핍을 가지고 있다(천정민, 김화수, 2016). 뿐만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제약으로 미숙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김수향, 2004). 또한 지적장애인은 학습활동에 기본이 되는 읽기, 쓰기, 수학 등에 지체가 현저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은 지적장애인의 인지와 사고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남순, 홍기훈, 2003). 이러한 지적장애인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및 문해능력의 부족은 지적장애인의 자기표현 및 자기결정에 영향을 주어 자립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에서 통합되어 자신의 삶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Gerharz, Eiser, & Woodhouse, 2003).

특히 문해능력인 읽기는 학령기동안 학업적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요인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삶의 영위하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능력이다(여광응, 이점조, 2001; Calhoun, 2005).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학교에서의 성공과 졸업 후 실제 삶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지능력 및 학업성취능력은 졸업 이후의 직업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Kuncel, Hezlett, & Ones, 2004). 지적장애인에게도 문해능력은 학령기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다(김정효, 이정은, 2008). 지적장애 성인은 동일 연령의 성인에 비해 단어나 문장읽기에 현저히 낮은 수행을 보이기 때문에(최경윤, 김화수, 2016), 문해능력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게 하며, 여가활동 및 직업활동을 위한 학습 및 정보에 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한다(Copeland & Keefe, 2007; Downing, 2005). 이렇듯 지적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의사소통 및 문해능력을 포함한 언어사용능력은 지적장애인의 삶의 대한 자기결정력을 높이게 하여(여광응, 박현옥, 김미은, 2006), 궁극적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들 영향요인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과 삶의 질의 관계는 고령자 및 치매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다. 선행연구는 노인의 인지능력 및 언어사용 능력이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박미정, 2011; 이미숙 2012, 2016; Savilla, Kettler, & Galletly, 2008)고 하였다. 박미정(2011)은 노령에 따른 인지기능의 차이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령의 인지기능은 지남력, 기억력, 계산력, 언어기능 및 이해와 판단으로 측정되었다. 이미숙 (2016)은 노인의 주의력, 기억력, 집행기능, 화용언어능력과 삶의 질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 인지능력 및 화용언어능력이

노인의 삶의 질과  $r=.68$ 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또한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경도인지장애와 인지능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김연옥, 심문숙, 2015)에서도 인지능력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애인의 인지능력 및 의사표현과 삶의 질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삶의 질에 유의한 상관을 가진다고 하였다(이병희, 고주연, 2010; 현혜진 외, 2003).

그런데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측정방식에 관하여, 제한된 언어능력을 지닌 지적장애인이 측정한 결과가 신뢰로운 결과인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대부분 제 3자가 측정하는 방식을 취해왔다(Schwartz & Robinovitz, 2003). 삶의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자가척도로 측정되기 때문에 제 3자에 의해 측정되는 삶의 만족도 결과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되거나 지나치게 낮게 측정되는 오류가 있다면 제 3자에 의해 측정되는 결과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McVilly, Burton-Smith, & Davidson (2000)은 경도지적장애인의 삶의 질 측정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와 그의 가족인 제 3자에 의해 측정된 결과가 차이가 없으며 과대 및 과소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경우 제 3자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객관적인 삶의 질과 주관적인 삶의 질이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계층분석을 통해 3차년도도 걸친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집단분석 및 인지능력 및 언어사용능력이 잠재집단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살펴 볼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은 집단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은 몇 개로 분류되며,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은 무엇인가?
2.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에 인지능력과 의사소통 및 문해능력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가?

## II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자료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된 자료 중 지적장애를 주된 장애로 하는 363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363명의 지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한 지적장애인의 성별은 남자가 231명(63.6%), 여자가 132명(36.4%)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70명(19.3%), 경기도 62명(17.1%), 부산광역시 30명(8.3%), 전라남도 28명(7.7%)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참여한 장애인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15~29세가 176명(48.5%)로 전체 참여한 지적장애인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30~39세가 102명(28.1%), 40~49세 47명(12.9%), 50세 이상 38명(10.5%)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지적장애인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192명(52.9%)로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하가 153명(42.1%), 대학교 졸업이상이 18명(5.0%)로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지적장애인의 특수교육여부를 살펴보면 일반학교 일반학급이 151명(41.6%)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학교 96명(26.4%), 일반학교 특수학급 63명(17.4%)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상태를 나타내는 취업 여부를 살펴 본 결과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취업자 수는 92명(25.3%)이었으며, 실업자는 15명(4.1%),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는 257명(70.6%)로 발달장애인의 대다수가 비경제활동인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지적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Gender	Male	231	63.6
	Female	132	36.4
Area	Seoul	70	19.3
	Gyeonggi	62	17.1
	Busan	30	8.3
	Jeollanamdo	28	7.7
	Others	174	47.8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continued)

		N	%
Age	15~29 yrs old	176	48.5
	30~39 yrs old	102	28.1
	40~49 yrs old	47	12.9
	> 50 yrs old	38	10.5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153	42.1
	High school	192	52.9
	University	18	5
Special education setting	General class	151	41.6
	Special education class	63	17.4
	Special education school	96	26.4
Job	Employed	92	25.3
	Unemployed	15	4.1
	Economically Inactive	257	70.6

## 2. 측정도구

### 1) 삶의 만족도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으로 가족관계, 친구관계, 살고 있는 곳,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 하고 있는 일, 결혼생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등 9개의 항목에 대하여 본인 및 보호자가 체크하도록 하였다.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1) 가족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2) 친구들과의 관계에 만족하십니까?, 3) 살고 있는 곳에 만족하십니까?, 4) 요즘 건강상태에 만족하십니까?, 5) 한 달 수입(또는 용돈)에 만족하십니까?, 6) 여가활동에 만족하십니까?, 7)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8) 결혼생활에 만족하십니까?, 9) 그렇다면 ○○○님은 일상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등의 질문에 대하여 매우 불만족은 1점, 불만족은 2점, 보통은 3점, 만족은 4점, 매우 만족은 5점으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해당 문항에 대해 응답을 거절하였거나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모든 항목에 매우만족을 표기하였을 경우 45점에 해당되며, 모두 매우

불만족으로 체크한 경우 9점에 해당된다. 활용한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6$ 이었으며,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성분1이 차지하는 변량이 전체의 50%이상으로 일차원성 가정이 충족되어 삶의 만족도의 단일요인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인지능력

지적장애인의 인지능력은 시간, 장소, 가족을 제외한 주위사람에 대한 인지능력 정도를 3점 척도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체크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1문항이었으며, '○○○님은 시간, 장소, 주위사람(가족 제외) 등을 어느 정도 알아봅니까?'라는 물음에 시간, 장소, 주위사람(가족 제외) 등을 알아본다는 1점, 시간, 장소, 주위사람(가족 제외) 등을 일부만 알아본다는 2점, 시간, 장소, 주위사람(가족 제외) 등을 알지 못한다는 3점으로 점수가 증가할수록 주위사물 및 사람을 인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인이 체크한 경우는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장애 등의 이유로 설문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답변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0.59이었다.

## 3)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을 5점 척도로 본인이 체크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확인하였다. 문항 수는 1 문항이었으며, '○○○님은 의사소통이 가능합니까?'라는 물음에 완전하게 의사소통 가능하다는 1점, 스스로 대부분의 의사소통 가능하다는 2점, 스스로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하다는 3점, 도움을 통해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하다는 4점,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아질수록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체크되도록 하였다. 본인이 체크한 경우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장애 등의 이유로 설문지를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보호자가 체크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0.673이었다.

## 4) 문해능력(읽기 및 쓰기)

지적장애인의 문해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는 읽기와 쓰기에 대해 3점 척도로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불가능한 상태, 제한적으로 가능한 상태, 가능한 상태로 지적장애인 자신 또는 보호자가 문해능력 정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은 1문항으로 '○○○님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한글 읽기가 불가능하다는 1점,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2점, 가능하다는 3점으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문해능력(읽기, 쓰기)은 점수가 증가할수록 한글 읽기 및 한글 쓰기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70$ 이었다.

###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수준의 변화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먼저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실시하여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을 바탕으로 하위집단을 분류하였다. 이후 잠재성장계층분석의 모형 선택을 위한 선행연구의 지표에 따라 하위집단을 분류하였으며,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에 속한 지적장애인 특성을 빈도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의 궤적에 따라 분류된 하위집단 분류에 인지능력 및 문해능력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들 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계층분석을 위해서 Mplus 7.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SPSS 25.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삶의 만족도에 따른 발달궤적 분석

<표 2>은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잠재계층성장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삶의 만족도는 3년에 걸쳐 3시점으로 수집된 자료이며,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지적장애인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가지 지표(indicate)의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집단부터 5집단까지 AIC, BIC, Adjusted BIC는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5집단에 비해 4집단의 Entropy가 0.815로 5집단의 0.727에 비해 1에 더 가까운 값으로 5집단에 비해 4집단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3집단과 4집단의 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LMR LRT) 값을 비교한 것은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에 비해(LMR LRT= 38.136, p=0.0033) 4집단과 5집단을 비교한 LMR LRT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LMR LRT= 18.181, p=0.3681), 5집단에 비해 4집단이 통계적으로 적절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은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Table 2> LCGM model fi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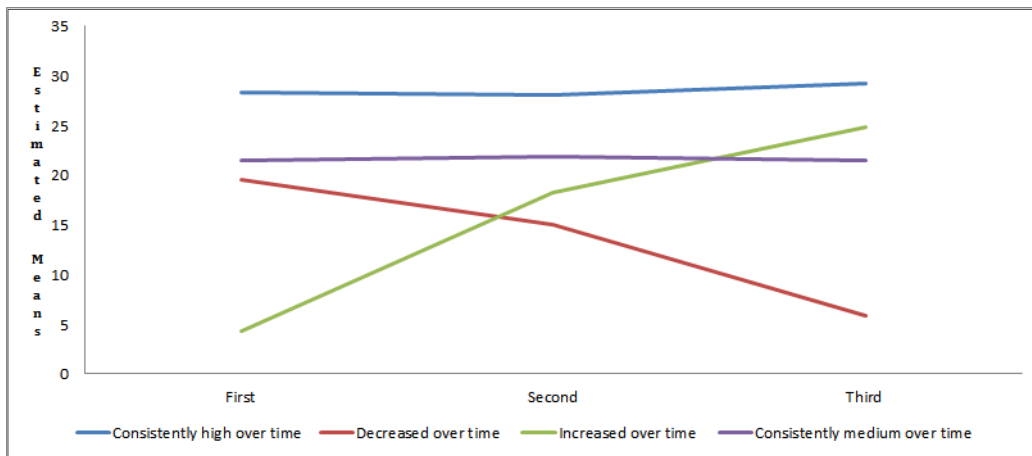
Group	AIC	BIC	ABIC	Entropy	LMR LRT (P value)	BLRT (P value)
1group	7335.465	7354.937	7339.075			
2group	7186.280	7217.435	7192.055	0.673	146.879 (p=0.0143)	-3662.733 (p=0.0000)
3group	7101.396	7144.234	7109.336	0.765	86.020 (p=0.0000)	-3585.140 (p=0.0000)
4group	7067.103	7121.625	7077.209	0.815	38.136 (p=0.0033)	-3539.698 (p=0.0000)
5group	7053.895	7120.099	7066.166	0.727	18.181 (p=0.3681)	-3519.552 (p=0.0000)

Note.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BIC=Adjusted BIC; LMR LRT=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 n/a = not applicable. All entropy ratings indicate acceptable fit. Entropy values close to 1.0 indicate higher classification precision.

4개의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3>와 같다. <표 3>에 따르면,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집단의 초기값과 기울기에 따라 연구자들은 4개의 집단을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Class 1),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Class 2),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집단(Class 3)과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Class 4)으로 명명하였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N=134, 36.8%)은 초기값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28.007를 보였으며 Slope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울기가 0인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N=34, 9.3%)은 초기값이 19.509이며, 기울기가 -6.811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집단(N=8, 2.2%)은 초기값이 4개의 집단 중 가장 낮은 5.198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155의 Slope로 높아지고 있었다.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과 높아지는 집단은 모두 평균이하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이지만 Slope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됨을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N=188, 51.6%)은 초기값이 21.651이며, Slope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기울기가 0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가 없는 평균 정도의 삶의 만족도를 지닌 집단의 특성을 보였다. 시간이 따른 4개의 집단의 초기값과 기울기의 변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살펴보면 4개의 집단 중 2개의 집단은 기울기의 변화가 없으며, 평균이하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면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과 높아지는 집단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Intercepts and slopes for latent classes

Quality of life trajectories (across 3 years)	Intercept			Slope		
	Est.	S.E.	p-value	Est.	S.E.	pvalue
Consistently high over time (N = 134)	28.154	0.771	<0.001	0.458	0.295	0.121
Decreased over time (N = 34)	20.127	1.224	<0.001	-6.960	0.954	<0.001
Increased over time (N = 8)	5.183	1.347	<0.001	10.174	0.828	<0.001
Consistently medium over time (N = 188)	21.622	0.522	<0.000	-0.057	0.287	0.843



<Figure 1> Pattern of latent subgroups on life satisfaction

## 2. 삶의 만족도의 변화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의 특성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통해 분류된 4개의 잠재집단의 인지능력, 의사소통 및 문해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빈도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를 살펴보면, 지적장애인 134명을 포함하고 있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은 3차년도에 걸친 삶의 만족도 총점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어려움이 적고 읽고 쓰는 문해능력에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잠재집단인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은 3차년에 걸친 삶의 만족도 점수가 낮아지고 있다.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은 인지능력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보이는 집단이었으며,

의사소통능력에서도 어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해능력에 있어서도 읽기와 쓰기영역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세 번째 잠재집단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적은 수의 지적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 집단이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집단은 3차에 걸친 삶의 만족도 점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의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은 평균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에 비해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높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집단의 문해능력을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평균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에 비해 수치상으로 문해능력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에 비해 높지만 이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마지막 집단인 삶의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은 3차년도에 걸쳐 평균 수준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보여준다. 인지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며, 문해능력에서도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에 비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에 비해 높은 문해능력을 보여준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Latent subgroups**

	Consistently high over time (N = 134)	Decreased over time (N = 34)	Increased over time (N = 8)	Consistently middle over time (N = 188)	
	M(SD)	M(SD)	M(SD)	M(SD)	F(Scheffe)
Life satisfaction 1	28.64(4.512)	19.50(5.559)	3.50(1.690)	21.43(4.387)	129.835 (I<D,M<H)
Life satisfaction 2	28.23(4.828)	14.97(9.214)	18.13(10.616)	21.78(5.674)	58.200 (D,I<M<H)
Life satisfaction 3	29.65(3.532)	5.70(3.754)	24.75(3.059)	21.27(3.791)	401.101 (D<I,M<H)
Cognitive ability	1.30(0.493)	1.70(0.810)	1.50(0.756)	1.49(0.598)	5.052*** (H<M,D)
Communication	2.55(1.094)	3.45(1.252)	3.25(1.165)	3.03(1.177)	7.760*** (H<D,M)
Literacy (Reading)	2.53(0.670)	1.64(0.822)	2.00(0.756)	2.17(0.779)	14.760*** (D<M<H)
Literacy (Writing)	2.51(0.746)	1.67(0.777)	2.00(0.756)	2.14(0.764)	14.097*** (D<M<H)

Note. H = Consistently high over time, D= Decreased over time, I = Increased over time, M= Consistently middle over time

### 3. 삶의 만족도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에 문해능력(읽기, 쓰기)이 미치는 영향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 궤적에 따른 잠재집단을 살펴 본 결과 동일한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지닌 잠재집단은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집단의 분류에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문해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결과는 <표 5>과 같다.

참조집단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Class 4)으로 하였으며, 참조집단과 차이를 보이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과 삶의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 간에는 인지능력, 의사소통능력, 문해능력(읽기, 쓰기)등 4개의 변수가 모두 집단 분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능력에 어려움이 없을수록(B=-.603, p <0.001),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을수록(B=-.362, p<0.001), 문해능력(읽기, 쓰기)가 높을수록(B=.670, p<0.001; B=.706, p<0.001) 삶의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시간에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과 삶의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 간에는 읽고 쓰는 능력인 문해능력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해능력(읽기)가 낮을수록 (B=-.865, p<0.001), 문해능력(쓰기)가 낮을수록 (B=-.801, p<0.001) 삶의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보다는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

지속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집단과 삶의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의 분류에서는 인지능력, 의사소통, 문해능력(읽기, 쓰기) 등 4개의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집단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Factors of life satisfaction

	Consistently middle over time (reference group)								
	Consistently high			Decreased over time			Increased over time		
	B	SE	OR	B	SE	OR	B	SE	OR
Cognitive ability	-0.603***	0.210	0.547	0.479	0.284	1.615	0.014	0.585	1.014
Communication	-0.362***	0.101	0.696	0.326	0.171	1.386	0.164	0.316	1.179
Literacy (Reading)	0.670***	0.163	1.954	-0.865**	0.256	0.421	-0.266	0.452	0.766
Literacy (Writing)	0.706***	0.165	2.025	-0.801**	0.259	0.449	-0.227	0.464	0.797

Note. Reference group is the class shows consistently middle over time at quality of life.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자료를 활용하여 3차년도에 걸친 지적장애인 삶의 만족도 변화 궤적에 따라 하위집단을 분류하고, 각 집단의 분류에 인지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문해능력이 예측요인으로 기능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의 주요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3차년도에 걸친 종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따른 4개의 잠재집단을 확인하였다. 3년에 걸친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36.8%),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9.3%),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집단(2.2%), 삶의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51.6%) 등 4개의 하위집단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을 기울기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집단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인지적 측면으로 접근한 것으로 주관적인 삶의 질의 한 척도이다(김미숙, 박민정, 2000). 장애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 또는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비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보다 대체적으로 낮다고 하였다(박재국, 손상희, 이미숙, 2002; 오세란, 2006; 이미숙, 조수진, 2011; 정소영, 임경원, 김삼섭, 2013). 특히 지적장애인과 뇌성마비의 삶의 질을 비교분석한 이병희, 고주연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지적장애아동은 뇌성마비아동에 비해 신체적인 삶의 질이 높지만, 사회심리적인 삶의 질은 뇌성마비아동에 비해 낮다고 하였다. 또한 전해영, 박재국 (2018)은 장애인의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을 잠재계층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높은 삶의 질 그룹, 낮은 삶의 질 그룹, 보통 삶의 질 그룹 등 세 개의 집단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의 경우 한 시점의 장애인의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이계승 (2014)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4차년도에 걸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가 해를 거듭함에 따라 0.021씩 낮아지는 패턴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삶의 만족도를 종단 데이터로 분석하였지만 패턴만 분석하였으며, 그에 따른 하위 집단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인 삶의 질의 한 영역으로 정적인 형태의 척도가 아닌 변화양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시간의 변화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지적장애인의 인지능력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으로 속할 확률이 높이는 예측변인이다. 본 연구결과는 인지능력에 불편함이 적을 경우 삶의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보다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지적장애인은 사물의 용도 파악하기, 지시사항에 따라 행동하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등 다양한 인지적 기능의 저하로 학습이나 기술을 습득하기에 매우 제한적인 특성을 지닌다(김환희, 장문영, 2012). 또한 인지능력의 저하는 학업 및 직무 기술을 습득하는 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다른 과제로 전이 및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주기 때문에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지적장애인의 취업률이 낮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도 적다(김종인, 조성열, 2001). 이러한 낮은 취업률과 취업기회의 부족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낮게 만드는 영향요인이다(김도향, 강다영, 신민근, 한지윤, 황진섭, 2020; 김동화, 김미옥, 2015). 본 연구에서도 지적장애인 중 취업상태인 경우가 25.3%였으며, 비경제활동인구가 70%이상이었다. 따라서 장애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또한 후속으로 이어지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인지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교육 및 지원이 지적장애인 성인에게 필요하다.

셋째,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예측변인으로 기능한다.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능력은 장애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촉진할 수 있는 자기결정과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지적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김진우, 2008), 스스로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자발적인 결정과 선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황성혜, 2011). 자기결정요인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가결의 요소이며, 자기결정에 있어서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은 추후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한 대인관계는 지적장애인의 삶의 질에 유의하게 관련되는 요인이므로(Miller & Chan, 2008), 지적장애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보완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지적장애인의 문해능력이 높을수록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에 속할 확률을 줄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의 분류에서 지적장애인의 문해능력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집단과 삶의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의 분류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기능하며, 삶의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과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의 분류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이는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문해능력이 중요함을 말해준다. 문해능력은 개인의 성장 및 사회경제적인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초능력이다(국립특수교육원, 2012). 지적장애인이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읽기 등 기본적인 문해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김정효, 이정은, 2008) 지적장애 성인에게도 문해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교육적 중재를 받지 못해 낮은 문해능력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제한된 삶의 기회와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갖게 된다

(Hock, 2012). 신보희, 안성우, 신창숙 (2014)은 문해교육은 장애 성인에게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하고 자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장애 성인의 문해교육의 중요성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발달장애 부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장애부모들은 기초 문해교육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룡, 나경은, 2015). 이처럼 본 연구도 지적장애인 문해교육이 삶의 만족도의 영향요인임을 밝힘으로써, 학령기 이후의 지적장애 성인의 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장애 인고용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기에 데이터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데이터 중 363명의 경제활동 연령에 속한 지적장애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모든 지적장애인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인지능력, 의사소통 및 문해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표준화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자가진단 및 보호자진단척도로 측정하였다. 이는 장애인고용패널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다른 연구에서 표준화 검사도구 등으로 측정하여 동일한 용어로 사용한 구인과 다르므로 연구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인지, 의사소통능력 및 문해능력에만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추후에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호자가 삶의 만족도에 대해 답변한 경우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삶의 만족도 측정수치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 체크문항에 대한 표기를 하게하여 차별화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Beyer, S., Brown, T., Akandi, R., & Rapley, M. (2010). A comparison of quality of life outcom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supported employment, day services and employment enterpris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3*(3), 290-295.
- Calhoon, M. B. (2005). Effects of a peer-mediated phonological skill and reading comprehension program on reading skill acquisi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with read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8*(5), 424-433.
- Cheon, J. M., & Kim, W. S. (2016). The Effects of Group Language Interventions Utilizing Integrative Art Therapy on Communication and Cognition Abilities of Elderly People With Mild Neurocognitive Disorder.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5*(4), 165-185.  
[천정민, 김화수 (2016). 통합예술치료를 활용한 그룹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경도 신경인지장애 노인의 의사소통과 인지능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25*(4), 165-185.]
- Cho, Y. U., & Cho, K. H. (2014). The Study of Quality of Life between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s Economic Capability: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Factor via Structural Equation Model Multi-Group Analysi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2), 276-309.  
[조용운, 조경훈 (201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삶의 질: 구조방정식 다중집단 분석을 활용한 정신건강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4*(2), 276-309.]
- Choi, K. Y., & Kim, W. S. (2016). A Study on Reading Error Patterns and Lateralization Characteristics in Words and Sentences of Adul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8*(4), 89-105.  
[최경운, 김화수 (2016). 경도지적장애 성인의 단어 및 문장의 유음화 특성과 읽기 오류유형 연구. *지적장애연구, 18*(4), 89-105.]
- Choi, S. N., & Lee, H. (2014). The Influence of Disability Tourism on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Dance, 10*(1), 55-76.  
[최수남, 이훈 (2014). 장애인 관광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춤과 과학기술, 10*(1), 55-76.]
- Copeland, S. R., & Keefe, E. B. (Eds.) (2007). *Effective literacy instruction for students with moderate or severe disabilities*. Baltimore : Paul H. Brookes
- Downing, J. (2005). *Teaching literacy to students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Strategies for the K-12 inclusive classroom*. CA: Corwin Press.
- Flores, N., Jenaro, C., Begoña Orgaz, M., & Victoria Martín, M. (2011). Understanding quality of working life of work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24*(2), 133-141.
- Gerber, F., Baud, M. A., Giroud, M., & Carminati, G. G. (2008). Quality of life of adults with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8*(9), 1654-1665.

- Gerharz, E. W., Eiser, C., & Woodhouse, C. R. J.(2003). Current approaches to assessing the quality of lif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Urology International*, 91(2), 150-154.
- Han, K. I. (2001). Improvement the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Severe Communication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2(1), 173-178.  
[한경입 (2001). 중증 의사소통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방안.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2(1), 173-178.]
- Hock, M. F. (2012). Effective literacy instruction for adults with specific learning disabilities: Implications for adult educator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5(1), 64-78.
- Hwang, S. H. (2011). Influence Factors of Self Determination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5(3), 203-229.  
[황성혜 (2011).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영향요인, *재활복지*, 15(3), 203-229.]
- Hwang, J. W., Kim, K. H.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황재원, 김계현 (2009). 대학생의 행복추구경향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상담학연구*, 10(1), 57-71.]
- Hyun, H. J., Oh, J. J., Choi, J. M., Lee, H. J., & Yoon, S. N. (2003). Ability of daily living,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Industrial Accident Disabled. *Occupational Health Nursing*, 12(2). 164-170.  
[현혜진, 오진주, 최정명, 이현주, 윤순영 (2003). 산업재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우울 및 삶의 질.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2(2). 164-170.]
- Jeon, H. Y., & Park, J. K. (2018). Analysis of LCA and the Influencing Factors according to the Objective ·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8(1), 31-56.  
[전혜영, 박재국 (2018). 장애인의 객관적 · 주관적 삶의 질에 따른 잠재계층분석과 영향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28(1), 31-56.]
- Jeon, M. S. (2018).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Disabled's Quality of Life: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Employed and Unemployed Disabled Peopl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 210-221.  
[전명숙 (2018). 장애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 210-221.]
- Jeong, S. Y., Im, K. W., Kim, S. S. (2013). Comparison of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Between the Physically Disabled, the Hearing Impaired and Without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7(2), 279-297.  
[정소영, 임경원, 김삼섭 (2013).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일반인의 의사소통 삶의 질 비교. *재활복지*, 17(2), 279-297.]
- Kim H. H., & Jang, M. Y. (2012). The Effect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through Individualized Education on Fine Motor Skill and Sociality in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1(1), 109-125.  
[김환희, 장문영 (2012). 개별교육을 통한 직업재활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소근육 기능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1), 109-125.]

- Kim J. T. (2011).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Promotion Behavior, and Life Quality of Participants in Lifetime Sports Program.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and exercise, 19*(1), 43-55.  
[김지태 (2011). 생활체육 참여 장애인의 건강상태지각과 건강증진행동 및 삶의 질의 관계.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9**(1), 43-55.]
- Kim J. W. (2008). Critical Review on 「Korean Anti-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ople Act」 in Respect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ocial Welfare Policy, 35*, 169-195.  
[김진우 (2008). 지적장애인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35**, 169-195.]
- Kim N. S., & Hong K. H. (2003). A Study on the Reading Guidance for the Mental Retarded Children Using Ecological Environment. *Journal of Student Guide Research, 22*(1), 117-134.  
[김남순, 홍기훈 (2003). 생태환경을 이용한 정인지체아동의 읽기능력 향상프로그램 개발의 연구. **생활지도연구, 22**(1), 117-134.]
- Kim, B. H., & Seo, Y. H. (2015). The Influence tha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Women with Disability Have on Quality of Life. *Korean Academy of Practical Human Welfare, 15*, 111-132.  
[김봉희, 서영희 (2015).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5**, 111-132.]
- Kim, D. G., & Shin, D. H. (2015). Study on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Mediating Effect of Health Level and Self-Esteem.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9*(1), 151-172.  
[김대규, 신동환 (2015).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재활복지, 19**(1), 151-172.]
- Kim, D. H., & Kim, M. O. (2015).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among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Disability & Employment, 25*(2), 209-233.  
[김동화, 김미옥 (2015).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인지하는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발달장애인은 삶에 만족하는가?. **장애와 고용, 25**(2), 209-233.]
- Kim, D. Y., Kang, D. Y., Shin M. G., Han J. Y., & Hwang, J. S. (2020).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Employment, Self-Reliance and Life Satisfaction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y School Typ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2), 599-607.  
[김도향, 강다영, 신민근, 한지윤, 황진섭 (2020) 학교유형에 따른 지적장애 학생들의 취업 및 자립성, 삶의 만족도 차이연구,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2), 599-607.]
- Kim, H. S., Lee, Y. J., Park, K. H., Kang, Kang, U. K., & Lee, B. M. (2010). Effects of Cognition Promoting Program on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8), 227-239.  
[김혜순, 이여진, 박광희, 강운구, & 이병문. (2010).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노인의 인지기능,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227-239.]
- Kim, J. G., & Kim, H. K. (2000). The Study on the relation of self-determination with quality of life and full-inclusion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4*(3), 1-26.

- [김정권, 김혜경 (2000). 자기 결정과 발달지체인의 삶의 질 및 사회 완전통합과의 관계. **특수교육학연구**, 34(3), 1-26.]
- Kim, J. H., & Lee, J. E. (2008). Mothers' reports on the life situations of their grown-up sons and daughter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2(4), 245-276.
- [김정호, 이정은 (2008). 한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들의 삶에 관한 어머니들의 보고. **특수교육학연구**, 42(4), 245-276.]
- Kim, J. I., & Cho. S. Y. (2001). The Development of the Budget Support Mode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5(2), 50-74.
- [김중인, 조성열 (2001).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지원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5(2), 50-74.]
- Kim, K. R., & Na K. E. (2015) Analysis of the parents' needs of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18(4), 315-336.
- [김기룡, 나경은 (201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부모의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16(4), 315-336.]
- Kim, M. S., & Park, M. J. (2000). The Impact of Religion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2), 29-47.
- [김미숙, 박민정 (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 20(2), 29-47.]
- Kim, S. H. (2004). The Effects of Art Therapy Program using Differential Reinforcement on Maladaptive Behavior in Child with Mental Retardation.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11(3), 319-341.
- [김수향 (2004). 차별강화에 의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정신지체아동의 부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1(3), 319-341.]
- Kim, Y. O., & Sim M. S. (2015). Cognitive Functions,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with Mild Cognitive Impairment.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9(2), 219-230.
- [김연옥, 심문숙 (2015). 경도인지장애 노인의 인지기능,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우울 및 삶의 질 관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9(2), 219-230.]
- Kim. K. T., & Yoo, A. R. (2013).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that Have Effects on the Life Quality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3(3), 113-134.
- [김길태, 유애란 (2013).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 분석. **직업재활연구**, 23(3), 113-134.]
- Ko, K.W., Hwang, K. S. (2014) A Study on Effect of Special Transportation System of Disabled Person on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4), 1963-1970.

- [고관우, 황경수 (2014).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만족도가 장애수용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5(4), 1963-1970.]
- Kraemer, B. R., McIntyre, L. L., & Blacher, J. (2003). Quality of life for young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during transition. *Mental retardation*, 41(4), 250-262.
- Kuncel, N. R., Hezlett, S. A., & Ones, D. S. (2004). Academic performance, career potential, creativity, and job performance: Can one construct predict them al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1), 148.
- Lee, B. H., & Ko, J. Y. (2010). Influential Factors for the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nd Cerebral Pals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49(2), 105-126.
- [이병희, 고주연 (2010). 정신지체아동 및 뇌성마비아동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탐색.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9(2), 105-126.]
- Lee, B. R., & Park, H. J. (2011). Self-Reported Quality of Life in Korean School-Age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129-152.
- [이보람, 박혜준 (2011).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인 삶의 질 양상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4(3), 129-152.]
- Lee, G. S. (2014). A Study on the Longitudinal Change Pattern and the Predictor Factor of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Focused on Social Capital including network and soci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5(2), 375-402.
- [이계승 (2014).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의 구성 개념인 네트워크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5(2), 375-402.]
- Lee, M. S. (2012). Health-Related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Elderly Subjects - Activities of Daily Living, Cognitive Functions, Prevalence of Chronic Diseases and Nutritional Assessment.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7(6), 772-781.
- [이미숙. (2012). 농촌지역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관련 요인: 신체기능, 인지기능, 만성질환 유병율 및 영양진단.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7(6), 772-781.]
- Lee, M. S.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linguistic Ability and Quality of Life in Older Adul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5(4), 143-161.
- [이미숙 (2016). 일반 노인의 인지-언어 능력과 삶의 질 간 상관성.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4), 143-161.]
- Lee, M. S., & Cho, S. J. (2011).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QoL) in hearing impaired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5(2), 175-187.
- [이미숙, 조수진 (2011). 청각장애 학생들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5(2), 175-187.]
- Lee, S. S. (2011). The Effect of Time use on Life Satisfaction of the Retired Elder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2), 35-58.
- [이신숙 (2011). 은퇴한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35-58.]
- McVilly, K. R., Burton-Smith, R. M., & Davidson, J. A. (2000). Concurrence between subject and proxy ratings of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 of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y, 25*(1), 19-39.
- Miller, S. M., & Chan, F. (2008). Predictors of life satisfaction in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2*(12), 1039-1047.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12). *A plan to support literacy education for adults with disabilities*. Asan :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국립특수교육원 (2012). **장애성인 문해교육 지원방안**.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Oh, S. R. (2006). Comparison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between person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 Focusing on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0*(2), 38-62.
- [오세란 (2006).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질 비교연구: 정신지체인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0**(2), 38-62.]
- Oh, S. R. (2008). A study about the predictor variables of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ocial Welfare Policy, 34*, 255-275.
- [오세란 (2008). 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4**, 255-275.]
- Park, J. K., Son, S. H., & Lee, M. S. (2002). Development of measuring Scale of Quality of Life for the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considerations of its applicability. *Special Education Research, 1*, 159-182.
- [박재국, 손상희, 이미숙 (2002). 지체부자유인의 삶의 질 척도 개발과 적용 가능성 탐색. **특수교육, 1**, 159-182.]
- Park, K. P., & Kim, D. C. (2015). Impact of Job Satisfaction on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Suitability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 Due to Disability. *Disability & Employment, 25*(4), 57-88.
- [박광표, 김동철 (2015). 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직무적합성과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5**(4), 57-88.]
- Park, M. J. (2011). The Cognition, Balance,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13*(2), 185-192.
- [박미정 (2011). 노인의 인지기능과 균형능력 및 삶의 질. **기초간호자연과학회지, 13**(2), 185-192.]
- Park, S. H. (2000). Social validation of the components of quality of lif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4*(2), 72-120.
- [박승희 (2000). 장애인의 삶의 질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화 연구. **재활복지, 4**(2), 72-120.]
- Park, S. W., & Shin H. K. (2003). The comparison to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on employment status and residence type of individuals with mild mentally retarded.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8*(3), 259-281.
- [박성우, 신현기 (2003). 경도 정신지체인의 고용상태와 거주형태에 따른 자기결정력과 삶의 질 비교. **특수교육학연구, 38**(3), 259-281.]
- Petry, K., Maes, B., & Vlaskamp, C. (2009).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profound multiple disabilities using the QOL-PMD: First result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0*(6), 1394-1405.

- Rey, L., Extremera, N., & Trillo, L. (2013).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cancer. *Journal of Psychosocial Oncology, 31*(1), 51-64.
- Savilla, K., Kettler, L., & Galletly, C. (2008). Relationships between cognitive deficits, symptoms and quality of life in schizophrenia. *Australian &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42*(6), 496-504.
- Schwartz, C., & Rabinovitz, S. (2003). Life satisfaction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living in community residences: perceptions of the residents, their parents and staff member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7*(2), 75-84.
- Shin, B. H., An, S. W., & Shin C. S. (2014). The Characteristics of Academic Motivation for Adult Literacy Learner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7*(3), 277-295.
- [신보희, 안성우, 신창숙 (2014). 장애성인 문해교육 학습자의 학습동기 특성-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7*(3), 277-295.]
- Shin, S. B. (2017).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4), 1043-1067.
- [신승배 (2017). 한국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21, 8*(4), 1043-1067.]
- Sim, M. Y., & An, S. A. (2012). A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in Relation to the Use of Movement Assisters : Focused on a Comparison between Workers with Severe and Slight External Physical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Welfare Engineering & Assistive Technology, 6*(2), 71-76.
- [심미영, 안성아 (2012). 이동보조기 사용에 따른 직업만족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중증과 경증 외부신체 장애자근로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6*(2), 71-76.]
- Wehmeyer, M. L., & Schalock, R. L. (2001).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Implications for special education services and supports, *Exceptional Children, 33*(8), 1-16.
- Windle, G., & Woods, R. T. (2004). Variations in subjective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with and without physical disability. *Women & Health, 50*(5), 443-458.
- Yeo, K. E., & Lee, J. J. (2001). Effects of PREP Training on Simultaneous, Successive Processing Function and Word Reading of Children with Reading Disabil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2*(3), 111-132.
- [여광웅, 이점조 (2001). PASS 읽기향상 프로그램에 의한 훈련이 읽기장애아동의 동시적, 연속적 처리기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2*(3), 111-132.]
- Yeo, K. E., Park, H. O., & Kim, M. E. (2006). The Effects of Decision-Making Education Program on the Self-Concept and Self-Determination Skills of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7*(2), 23-43.
- [여광웅, 박현옥, 김미은 (2006). 의사결정기술 교수프로그램의 적용이 정신지체학생의 자아 개념과 자기결정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7*(2), 23-43.]
- Yoo, K. S. (2010). A Study on Level of Life Satisfaction by Disabled. *Kore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2*(1), 107-128.
- [유공순 (2010). 장애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2*(1), 107-128.]

<국문 초록>

## 잠재계층성장모형을 활용한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 분석

조영희 · 박재국

**[목적]**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분석하고 인지 및 언어사용능력과 관련된 의사소통능력과 문해능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자료 중 지적장애인 36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3년에 걸친 삶의 만족도를 잠재계층성장모형으로 분석하여 잠재집단의 유형을 확인하고, 인지능력, 의사소통, 문해능력 변인이 잠재집단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다항 로지스틱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잠재계층은 '높은 삶의 만족도 집단', '점차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 '점차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집단', '평균 삶의 만족도 집단' 등 4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 인지능력, 의사소통능력, 문해능력이 높을수록 '평균 삶의 만족도 집단' 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문해능력이 높을수록 '점차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집단'보다 '평균 삶의 만족도'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 삶의 만족도 잠재집단 및 영향요인에 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에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잠재성장계층분석, 지적장애, 삶의 만족도, 문해능력

논문 접수(Received): 2020. 08. 07. / 심사 시작(Examined): 2020. 08. 07. / 게재 확정(Accepted): 2020. 09. 12.